

□ 영상분야

생각보다 수준 높은 지원자의 비율이 높은 느낌이었습니다.

일부 준비가 미흡한 지원자도 있었지만 뛰어난 지원자의 비율이 높아 놀랐습니다.

다만, 높은 제작역량에 비해 뉴콘텐츠라는 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력은 아직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.

하지만 이는 교육을 진행하며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